

건강칼럼

사랑니, 무조건 뽑아야 하나?

사랑니는 입 안 제일 뒤쪽에 나는 큰 어금니로 제2대구치(두 번째 큰 어금니) 뒤에서 가장 늦게 나는 치아다. 우리나라에선 사랑할 만한 나이에 나오는 치아라 해서 '사랑니'라고 부르지만, 서양에선 사랑니가 나올 때쯤이면 지식을 깨우친다 하여 'wisdom tooth'라고 부른다. 주로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나며, 전혀 없는 경우부터 4개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니를 무조건 뽑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는데, 이에 대해 알아보자.

▲사랑니가 나는 이유

먼저 사랑니가 나는 이유를 알아보자. 사랑니는 왜 나는 걸까? 사랑니가 나는 이유에 대해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인류의 진화로 인한 식생활 변화 때문이라는 설이 제일 유력하다. 불이 없던 시대에는 딱딱하고 질긴 낱것 그대로의 음식을 씹어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치아가 필요했다. 따라서 당시에는 턱이 발달했고 치아가 배치되는 공간도 넓었는데, 인류가 불을 사용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턱이 작아지고 어금니가 퇴화했다는 것이다.



오민석 선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물론 개인에 따라 치아 발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사랑니가 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또 사랑니가 나는 시기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턱뼈 깊숙한 곳에 '배복 사랑니'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다면 사랑니는 왜 비틀게 나는 걸까? 사랑니는 이미 기존 치열이 자리 잡은 20대 전후에 나온다. 따라서 기존의 완성된 치열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부족한 턱뼈 공간을 비집고 나오려다 보니 방향이 불규칙해진다.

▲사랑니는 무조건 뽑아야 하나?

모든 사랑니를 무조건 뽑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니가 나더라도 잇몸 속에 완전히 감춰져 어떤 증상도 일으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뽑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랑니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충치나 염증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부분적으로 보이는 치아의 경우 감염 및 통증을 유발하거나 인접 치아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완전히 숨겨진 사랑니의 경우에도 치아를 둘러싸는 주머니에 액체가 차 물혹을 형성하기도 한다. 정상적으로 완전히 난 사랑니라고 해도 위 치상 치질이 잘 닿지 않으므로 구강 관리가 어려운 경우 구강 건강과 위생 관리를 위해 발치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사랑니를 뽑는 시기는 신체방역력이 높고 턱뼈도 무른 20~30대가 좋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니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턱뼈 또한 치밀해져 나이를 먹을수록 사랑니를 제거하기 힘들며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사랑니 발치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사랑니를 뽑은 후 환자들이 느끼는 것은 부종, 통증, 저작장애(음식물을 씹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증상) 등의 불편감이다.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일반 외과적 시술과 마찬가지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작게는 발열, 붓기, 통증이 생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선 발치한 부위에 혈액이 정상적으로 차지 못해 통증이 심해지는 건상치조골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큰 감각 신경이 사랑니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경우에는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으나 보통 이런 증상은 일시적이며 드물게 나타난다. 통계적으로 사랑니 발치로 인한 턱신경 감각이상 발생 빈도는 0.6%~3%까지 보고되고 있다. 높은 빈도는 아니지만, 감각이상이 발생하면 장기간의 약물, 물리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사랑니를 뽑은 뒤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불편감은 치과사의 처방과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치 후 불편한 느낌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치과 의사에게 문의하도록 하자.

사설

연속 발전 프로젝트에 계속 힘 실어야

연속 발전 프로젝트에 계속 힘을 실어야겠다. 전북도는 아심차게 선언한 게 있다. 전북 대도약을 위해 발전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전북도는 말 그대로 그 성취를 위해서 힘내야 한다. 그리고 그 성취는 우선 새만금 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오래전에 국제 공항 건설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갈 길이 멀다. 현 정부의 예타면제는 전국적인 것이다. 우선적인 지원을 받으려면 경쟁이 치열할 터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에 매머드급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것을 성취하려면 기대감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구체적으로 추진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도민들은 무슨 사업이고 연속성을 바라고 있는 것이다. 어떤 새로운 일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발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우리 전북 지역에는 많은 청사진 발표가 있었지만 그게 구체적인 사업 추진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의 연속 발전 프로젝트를 위해 저력을 보여야 한다. 그 저력이 없다면 그동안 있었던 자존 선언은 그저 착한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는다. 전북도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존을 공표하고 제류 찾기를 선언했지만 우리 지역의 현실은 어려운 것 투성이다. 희망하는 바와 반비례하여 낙후가 심화되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전북 지역에는 새로운 그 무엇도 좋지만 기존 프로젝트에 힘을 더하는 연속성이 절실하다.

우리 지역의 낙후는 도민의 수가 많고 있다. 전북도가 더 자세히 기억하고 있으려나와 보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1만 3,773명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지금의 난감한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한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 전북도는 2백만 도민 운운하고 있지만 그것은 쉼표 자존심일 뿐이다. 180만 명대 수준에서 간신히 턱걸이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니 낙후를 반복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는 연속 발전 프로젝트에 계속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전북 혁신도시의 제자리 걸음

전북 혁신도시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의 혁신도시를 각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키우고 있는데 우리 전북의 혁신도시만 긍정적 영향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R&D 관련 국가 기관 이전 위주로 구성된 혁신도시로서 그렇다는데 그래도 납득이 안되는 구석이 있다. 전국 혁신도시들을 보면 많은 기업들이 풀고부 입주했다는데 이쪽은 그 성과가 너무 초라하다. 전북 혁신도시가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 거점 도시가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 큰 변화가 있어야 했다.

전북도는 분발해야 한다. 전북혁신도시의 현안을 정부의 관심 대상으로 끌어올리려면 그래야 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광역시도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도지사가 했던 말이 다시 생각난다. 도지사는 그 자리에서 혁신도시의 발전을 건의한 바 있다. 앞으로 그 정부 관심의 대상이 되게 하려면 다른 광역시도의 현안들보다 더욱 돋보여야 한다. 돋보이게 하는 노력이 치열하지 않다면 다른 지역의 현안에 밀릴 수도 있다. 저번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된 것도 섬진만에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들과 비교 대상이 되는 것

은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전북도가 혁신도시의 발전구상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음에도 그게 도민들을 상대로만 발표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시일이 상당히 지난 후에도 대통령 소이한 비전들이 반복해 발표되고 있는 까닭이다. 전북도가 혁신도시의 발전 현안과 관련해 희망을 말했으나 그게 실속이 없지 않느냐는 물음이다. 역대 정부들이 전북 발전 현안과 관련해 풍선 날리기를 반복했던 것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발하지 풍선만 날려가지고 혁신 도시에 발전상이 시원스럽게 전개될 턱이 없다. 대통령이 전북 발전을 약속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골이골대로 믿어 순조롭게 전개되리라 생각하면 곤란하다.

전북도는 중심을 잡고 예의 주시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혁신도시의 발전 현안을 정부의 중요 관심사로 만들기 위해 애써야 한다. 앞으로 혁신도시를 금융 허브로 키우려면 그래야 한다. 혁신도시 발전 현안을 정부의 관심 대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는 뚜렷하다. 발전의 성취는 경쟁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지역발전의 항상 중심주제로 삼아야 한다.

기고문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 경남 양산의 통도사 앞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만든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75세 고령의 운전자였으며, 이에 고령운전자의 운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또, 얼마전 전북 전주에서는 80대 고령운전자가 불던 승용차가 어린이집 수영장을 덮쳐 어린이 등 5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음으로 보아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한 적극 실천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최근 노인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4%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매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2014년 20,275건을 시작으로 2018년 30,012건까지 4년 사이에 약 1000여건이 꾸준히 증가해왔다고 한다. 또한, 2018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 중 22.3%를 차지했으며, 사망자 수만 843명에 이르렀다. 이에 나라에서도 65세이상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를 유도하고 있다. 원로배우 양택조씨도 지난 2월 운전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고령자 교통안전 홍보대사'로 위촉돼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얼마 전 이낙연 국무총리도 도로교통공단 행사에서 "늦지 않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발언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제도를 아시나요?

나이가 들면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헛갈려하기도 하며, 주행 중 급정거가 필요한 돌발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이러한 이유로 교통사고만 냈다하면 무고한 시민이 중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되는 등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운전자들이 차로유지가 어렵고

자신의 경적 신호를 자주 듣는 등 자신의 운전능력 이상 징후를 알아차린다면 자발적인 면허증 반납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여러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해 10~20만원 권 교통카드 충전 등 여러 혜택을 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니, 고령운전자분들의 자발적인 반납으로 교통사고가 예방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보행자, 또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랑하는 부모님께 면허증 자진 반납을 권유하고 설득하는 자녀들의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지원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가속페달과 브레이크 페달 사이를 오가는 게 힘들거나 운전 중 다른 운전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